

축산물 직거래 확산 필요하다

축산물 직거래의 중요성



권 원 달 교수
(충북대 농경제학과)

최 근 축산물 직거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축협중앙회의 직판장을 비롯해서 단위축협이 소비자 직판장을 개설하여 성가 높고 브랜드화한 축산물을 여러 형태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축협중앙회의 한 우유 직판장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소비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크게 확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생산능가가 직접 소비지에 출하하여 직판장 또는 체인점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며 경쟁이 심하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우유의 경우도 목장에서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여 유통경비도 절감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축산물 직판장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한결같이 사육농가들이 직접 출하한 한우육을 차별화 하여 판매한다고 하며 여러 형태의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축산물의 산지직거래는 축산물거래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직결된 형태로 시장기능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거래 형태로서 유통경비의 절감과 물가정책의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산지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면서 시책 면에서는 다양한 시책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축산물 산지 직거래의 중요성은 유통과정이 단축되어 유통경비가 크게 절약될 수 있고 거래과정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기존 시장유통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지 못하던 소외된 과정을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축산물의 직거래는 거래되는 축산물이 엄격하게 표준규격화 되지 않고 간략하게 규격화 되어도 거래가 가능하며 그만큼 불편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산지 직거래가 갖는 뿌리깊은 현대적인 의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비자가 신선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산지가 분명하여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도 당사자간에 인간적인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산자는 생활을, 소비자는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축산물 산지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게 능률적이고 규모화 되면 유통비용절감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지불가격을 낮게하여 경제적 후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직거래 유형

축산물 직거래의 유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 집배센타와 물류센타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직거래, 그리고 공기관에 의한 직거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직거래의 유형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 거래, 그리고 물류센타나 집배센타를 통한 직거래, 각종 행사를 통한 직거래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산지 직거래는 소위 사회경제적 운동으로서 시장중심의 유통방식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제약성도 많다.

직거래의 전제

산지 직거래는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가격 결정 과정에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직거래 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보다 높게 그리고 소매가격보다 낮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직거래 대상 품목과 수량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도 문제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구색도 맞추고 물량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통경비의 절약도 대량거래가 전제될 때 가능하며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거래 축산물의 계획적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약성이 많다.

축산물 산지 직거래의 전제는 직거래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경제적 여건 즉 대량거래와 가격조건, 그리고 소비자 활동의 적극성과 정부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 직거래에 지켜져야 할 원칙은 생산자와 생산지, 생산방법이 명확해야 하고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축산물 직거래가 발전하려면 철저한 상호 신뢰풍토를 조성하여 인간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종의 인간회복 운동이기 때문이다. 직거래가 인간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정착하려면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 결정 방법, 품목과 수량조절, 거래물량 규모화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직거래가 보다 체계화 되려면 소비자협동조합 육성과 직거래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축산물은 비교적 직거래가 가능한 상품적 특성 때문에 발전성이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기능을 견제하면서 보완성을 갖도록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養豚**

축산물 산지 직거래의 전제는 직거래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경제적 여건 즉 대량거래와 가격조건, 그리고 소비자 활동의 적극성과 정부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 직거래에 지켜져야 할 원칙은 생산자와 생산지, 생산방법이 명확해야 하고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